2008년 우수법인상 수상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동양저축은행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평촌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제1827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1월 24일 (음력 12월 29일) 토요일

LED 관련 대기업 유치 광주 수출 다시 살려야

자동차·반도체 의존 탈피 체질 개선 시급

광주의 수출 100억 달러선이 1년 만에 붕괴돼 지역 산업구조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인 LED(발광다이오드) 관련 대기업 유치에 나서는 등 장기적인 산업체질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산업구조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들 부문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수출 등 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와 관세청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이 전년 101억달러 보다 7.2% 감소한 94억1천200만달러를 기록했다.<본보 23일자 8면 보도> 이는 지역 수출 비중의 24.1%인 승용차와 22.6%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각각 16.0%, 21.1% 감소한 탓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산업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출이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 광기술원 등 국내 최다 LED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LED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집중 투자·육성을 통한 산업체질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세계적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LED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임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LED관련 대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LED 산업의 매출은 지난 2005년 1천371억원이었으나 지난 2006년 1천928억원, 2007년 2천745억원, 2008년 4916억원 등 매년 평균 54%이상 급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118개 LED 업체 중 대기업은 LG이노텍 한 곳 뿐이서 생산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LED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LED독립 합작 법인 추진하고 있어 광주시의 기업유치의 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LED독립 법인 3월 설립을 위해 삼성전기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가전 등이 퇴조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광주시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LED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절실한 만큼 해외 기업 유치는 물론 국내 대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향이다! 설 연휴를 시샘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23일 광주역을 통해 고향을 찾은 가족들의 화사한 표정이 정겹다. 이날 광주·전남 일부 지역엔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귀성길에 차질이 빚어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폭설 뚫고 2,800만명 고향으로

강추위까지 겹쳐 귀성 전쟁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24일~27일)를 맞아 2천800만명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눈을 동반한 매서운 한파가 설 연휴와 겹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3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2천81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는 지난해 설대비 2.4% 늘어난 하루 평균 340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은 지난해보다 3% 가량 늘어난 약 80만명의 귀성객이 고속도로를 통해 광주·전남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주 요금소를 빠져 나온 차량은 9천706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많은 눈 때문에 오후 들어 일부 도로에서는 결빙으로 인한 지체가 예상된다.

귀성 행렬은 설 연휴 하루 전날인 23일 오후~24일 오전 사이에 집중돼, 광주 요금소와 전주 나들목(IC) 부근은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경객은 26일~27일 오후에 몰리면서 전주 나들목과 익산 나들목 부근에선 거북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 광주·전남 날씨

24(土)	25(日)	26(月)	27(火)	28(水)
흐리고 눈	구름 많고 눈	구름 많음	맑음	맑음
-6/-1	-6/1	-6/2	-6/4	-3/8

승용차 기준 귀성길 최대소요시간은 서울~광주 7시간, 서서울~목포 7시간1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로는 1시간 빠른 6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귀경길은 광주~서울 8시간30분, 목포~서서울 8시간50분 정도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설 연휴 전날인 이날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귀성길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와 여수, 완도 등 여객선 터미널의 운항이 통제되면서 설을 맞아 섬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려는 승객들이 발이 묶인 상태다. 이날 전남에서는 48개 항로 72척의 여객선 중 40개 항로 51척이 통제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랑해요, 대한민국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광주에 보금자리를 꾸민 외국인 새내기 주부들이 23일 광주시 남구 광주향교에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광주일보는 '온누리안 리포트'(2007년),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2008년)에 이어 올해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등 연중 시리즈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의 삶, 애환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5·26·27일 신문 쉽니다
설특집·극장가·TV
11~22면
쏙 뽑아보세요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